

장흥군 태양광발전 규제 반발...민원 폭증

37건 취소, 120여건 행정절차...불허 불복 소송 빈발
도로 1000m 이내 제한...“신재생에너지 육성 역행”

장흥군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 폭증하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군 관리계획조례’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해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은 217건 중 최종 개발행위허가까지 이어진 경우는 9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취소된 경우가 37건에 이르고 나머지 120여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그나마 자치단체의 ‘불허’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고등법원 등에서 행정소송도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장흥군의 경우 타 자치단체와 달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 훼손 보호를 위해 거리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게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

는 실정이다. 장흥의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1000m 이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무안, 함평, 신안군도 장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발업자들은 담양, 곡성, 화순, 안동 등은 500m로 제한범위를 완화했고 나머지 시·군은 아예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도로 1km 이내에 시설 건립을 막는 것은 일조량과 개발 가능 지역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태양광 시설 건립 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과

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다. 장흥군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과정에서 산림훼손 우려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전·답) 면적이 감소하고, 건축물의 경우 자연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점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시설 건립과 관련, 거리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일선 시·군 등에 전달한 상태지만 자치단체들은 난개발과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고려청자박물관이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개발한 신제품.

강진청자 잘 나갑니다

박물관 판매량 작년 3배
소규모 제품 출시 효과

강진청자 판매량이 늘고 있다. ‘찾아가는 청자 경매’나 ‘도요 경매’ 등 다양한 판매 촉진을 마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청자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게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고려청자박물관은 올 들어 5월까지 판매량이 6200만원 상당으로 전년 같은 기간(2000만원)에 견줘 3배 이상 늘어났다. 청자박물관은 직접 만든 청자제품을 판매해오고 있다.

TF를 꾸리고 15개 민간업체와 협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청자제품을 만드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이들은 27개 종류의 청자 신제품을 내놓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매주 토요일 마라 놀토 수산시장에서 진행되는 강진청자 토요경매나 지역축제장에 마련한 청자 판매장도 판매량 증가에 한몫을 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고려청자박물관은 올 들어 5월까지 판매량이 6200만원 상당으로 전년 같은 기간(2000만원)에 견줘 3배 이상 늘어났다. 청자박물관은 직접 만든 청자제품을 판매해오고 있다.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매월 열리는 축제·행사 등을 활용한 점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매한 청자 제품도 329점(1790만원 상당)에 달했다.

민간업체가 제작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강진청자판매장 판매량도 전년 같은기간(1~5월 판매량 7200만원)에 비해 44.2% 늘어난 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자박물관은 하반기에도 ‘여름 쿨썸머 생활 도자기전’(8월), ‘서울시 지역자원교류전’(9월), ‘가을 청자 풍년전’(10월), 한·중·일 도자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박물관 측은 우선, 대형·고가품 위주의 청자제품 대신, 주요 구매층인 여성·주부들이 선호하는 소규모 청자 제품을 신제품으로 내놓은 게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지난해 말 신상품개발

을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수중 줄다리기·지상 최대 물싸움 시원하게 즐겨보자

탐진강변 정남진 장흥 물축제
28일~8월 3일 7일간
맨손 물고기 잡기 등 체험행사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수중 줄다리기. 올해는 장흥 지역민, 관광객, 외국인 뿐 아니라 전국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도 치러지면서 한층 재미를 더했다. <장흥군 제공>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탐진강 일대에서 펼쳐지는 살수대 접 페스티벌, 지상 최대의 물싸움 등은 관광객들을 사로잡으면서 대표적 여름 축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 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물과 숲·휴’를 주제로 오는 28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축제는 다음달 3일까지 7일간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대에서 펼쳐진다.

물축제의 길러 콘텐츠로 불리는 ▲살수대접 거리 페스티벌 ▲지상 최대의 물싸움 ▲맨손 물고기 잡기 ▲수중 줄다리기는 한 단계 재미를 업그레이드했다는 게 주최측 설명이다.

살수대접 페스티벌은 10년째 이어져온 물축제의 메인 이벤트로 군민과 관광객이 한 데 어울려 물싸움을 벌이며 시가지를 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9일 오후 1시부터 군민회관~탐진강변 일대에서 이동식 무대를 동원해 지열하게(?) 펼쳐지고 전문 댄서들도 참여, 어울리는 재미가 늘어났다.

군민과 관광객이 한 데 어울려 물총, 물풍선, 바가지를 이용해 펼쳐지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도 28일부터 매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최고 인기 프로그램을 자리매김한 맨손 물고기 잡기도 29일부터 매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최대 2000명이 동시에 입장, 즐거움과 잡는 재미를 더했다는 게 주최측 설명이다.

젊은층들을 겨냥, 여름밤 프로그램을 늘린 것도 눈길을 끈다.

장흥군은 28일부터 30일까지 매일 밤 9시부터 2시간 유망 DJ가 참여하는 ‘장흥 워터락(樂) 파티’를 열고 31일~8월 2일에는 라디오 DJ, 통기타 가수들과 함께 7080 뮤직을 즐기는 ‘별밤 수다(水多)쟁이’ 파티를 마련했다.

이외 수중 이어달리기, 물동이 이고 달리기 등 참여 위주의 새로운 수중 프로그램과 물 자동차 만들기, 수상 자전거, 우든

보트, 카누, 뗏목 등 물놀이 시설도 마련해 놓고 있다. 장흥군은 또 물축제 주제전시관을 운영, 관광객들에게 지난 10년의 물축제 역사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축제로 나아가길 미래 1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름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서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정남진 장흥 물축제 주요 프로그램
- ◆살수대접 거리 페스티벌
7.29(토) 13:00 장흥군민회관~축제장
- ◆지상 최대의 물싸움
7.29(토)~8.3(목) 14:00~15:00
- ◆맨손 물고기 잡기
7.29(토)~8.3(목) 15:00~17:00
- ◆수중 줄다리기
7.28(금) 16:30/화합의 줄다리기
7.29(토) 15:00/관광객 참여 줄다리기
7.30(일) 15:00/스포츠 줄다리기 최강전

영암군 농기센터 전자상거래 사업설명회

영암군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설명회는 지역 생산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것으로,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영암군은 최근 영암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 올 5월부터 G마켓, 옥션 등을 활용해 영암농산물 홍보에 나서는 한편, 전자상거래 택배비(65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영암=전봉희기자 jbh@

영암군을 전담지방우정청 마케팅팀장은 이날 “농업인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고 가치를 팔 것, 수도권의 젊은 세대와 30~40대의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방법 활용과 새로운 융합상품을 개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신안동 주상복합상가

전남대정문인근 (1층, 2칸) 일반물건

건물 32평
매매가 3억5천
(용자 2억5천, 보증금 5천, 월 143만원)

【법원 경매/공매】

토 지	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성군 고달면 두거리 산234 토지 11,970평 감정가 44,000,000 최저가 44,000,000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큰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감정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정가 58,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장성 서삼면 송현리 내면마을인근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도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928,000,000 ▶나주 세지면 성산리 식산마을인근 토지 25643 건물 5002평 감정가 2,554,000,000 최저가 1,787,000,000 ▶나주 다시면 월태리 원동마을내 토지 754평 건물 325평 감정가 591,000,000 최저가 414,000,000
근 린 시 설	일 반 물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111평 감정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3493평 건물 1734평 감정가 49억 최저가 14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름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능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휴관리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